

공동체 소식

성모성월 안내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지난 1965년에 발표한 '성모성월에 관한 교서'에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 가정 공동체는 성모성월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 마리아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모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간 성모님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뵈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형(典型)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본당의 날 안내

본당 주보성인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축일이 5월 29일입니다. 따라서 본당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29일에 가까운 주일이나 5월중에 본당의 날로 보냅니다. 올해는 5월 26일 주일이 본당의 날이 됩니다.

주일학교 교리 방학

6월 2일(일)부터 8월까지 방학합니다. 개학은 추후 공지합니다.

미사/사제연수 안내

- 6월~8월 본당 토요일미사 없습니다.
- Holy Trinity본당에서 6월부터 8월까지 평일 06:30, 토요일 07:30미사를 Stone Chapel에서 봉헌합니다.
- 북미/중미 교구 사제 연수로 6월 11일(화), 12일(수), 13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사제연수 기간 : 6월 10일(월)~14일(금)
- 사제연수 장소 : Alaska Anchorage 한인성당

교구대회 사전 본당모임 안내

- 6월 2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Crowds to Three 와 Leader's Guide 지참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전례 성가

	입당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131	512	180	245
차 주	141	211	163	141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아네스)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차 주	김주연(세실리아)	차호섭(요셉) 조지연(마리아)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정예진(하나) 김정훈(로베르도)
차 주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하나)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띠노), 김동술(요한)
차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애찬 봉사자

금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차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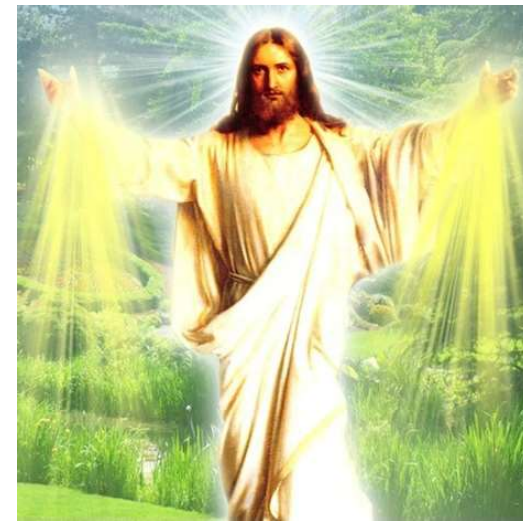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청소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 1,27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5,1-2.22-29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기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답송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10-14.22-23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3L-29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말씀

위기와 갈등



부활 제6주일에 교회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사는 그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회의(Apostolic Council of Jerusalem)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50년경에 있었던 그 회의의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테파노의 순교 후 박해받게 되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티오키아 등으로 흩어집니다. 그 후 안티오키아의 그리스계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파견하였고, 하느님의 은총을 확인한 바르나바는 타르수스에 있던 사울(바오로)을 그곳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그곳을 거점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안티오키아 공동체에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바르나바와 바오로 등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열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해 보고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견해를 전하는데, 결국 최소한의 율법은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한다는 야고보의 견해가 서신의 형태로 안티오키아 공동체에 전해지고, 공동체는 기뻐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티아서도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갈라 2장이 전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5장과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그 회의에서 자신이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과 케파(베드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이 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이렇게 사도들의 시기에 있었던 교회의 내적 위기와 갈등을 전합니다. 비슷한 갈등이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카인과 아벨, 사라와 하가르, 야곱과 에사오, 모세와 미르얌,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듯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위기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

로 이어졌을까요? 때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갈등은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사회 역시 내적 위기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부활을 고백하는 하느님 백성은 결코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예수 부활 안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그분의 삶이 평화로웠던 적이 있나요.

평화를 위해
진리를 위해
머리 돌 곳조차 없으시던 그분의 평화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요? 아직도 마음 편하고 삶이 편하기만 한 세상의 평화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 14,2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앞으로의 나

아직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운동을 시작했던 동료들과 후배들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언젠가 다가올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글을 쓰면서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상화 선수의 은퇴로 '늘 함께하던 동료가 은퇴하니까 기분이 어때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은퇴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스케이트 선수가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내가 되었을까?' 이런저런 상상과 생각을 하던 중 책상 앞에 있는 십자가에 눈이 갔습니다. '만약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의 신앙심이 더 깊어질 수 있었을까? 평소 가족에게 부담감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던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운동을 하게 된 것이나 운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이기는 하지만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러닝 동호회'나 '자전거 동호회'에 함께 할 기회가 생기면서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던 운동이 새롭게

느껴졌고, 매일매일 지루하게 타던 스케이트가 다시 재미 있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얼음 위를 달리고 싶어 하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운동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겐 신앙도 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데, 왜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선수 생활 막바지에 들어선 저로서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시간과 과정들로 인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운동선수로서 신앙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누려야 할 행복함과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답답할 때는 하느님처럼 넓은 하늘을 보면서 한 박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게 어떨까요?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곽윤기 스테파노 | 쇼트트랙선수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원희진 레아